

어디로 데리고 갈까?

김성훈/ 생명의 진화 상담부장

1992년은 정치의 해다. 이미 국회의원 선거전은 막이 올라 T.V와 신문의 대부분을 차지하다시피 하여 싫든 좋든 우리의 관심을 요구한다. 그러나 만나는 사람마다 정치와 정치인들에 대한 불신에 가득찬 소리를 낸다. 정치의 해에의 서막이 무관심과 불신과 조소로부터 출발되어짐은 우리 모두를 착잡하게 한다.

우리 사회가 점점 황폐해져가는 느낌은 바로 이 정치관에서부터 인 것 만은 틀림없는 것 같다. 정치란 것이 서양에서도 깨끗하지 못한 것, 정치가란 가장 추한 인물처럼 묘사한 풍자 이야기나 만화의 컷을 대하여 왔지만, 실은 우리네 삶의 모습을 변화시킬 수 있는 원천임을 알기에 많은 기대와 꿈을 갖고 있어,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함이나 산산히 부서어진 경험 때문에 정치란 별로 기대하거나 믿을 것 없다는 원망일 것이다.

한두 사람도 아닌 그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보다 향상시키기 위한 정치, 그 원대한 꿈을 가지지 않은 정치가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이 임상 실험의 대상도 될 수 없으며, 더더욱 시행착오로 인한 오히려 삶의 절망을 느끼게 할 대상도 아니기에 정치란 야망이나 꿈이

나 이상이나 탁상 이론으로만 설명되거나 실행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이다. 역사상 많은 정치가들의 과대망상이나 분별력없는 결단으로, 전혀 엉뚱한 신념으로 그들의 민족이나 국가를 시련과 고통에 빠뜨려 왔는지 우리는 익히 알고 있기에, 올바른 선택으로 올바른 정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개개인의 책임 또한 막중하다는 것을 느낄 수 밖에 없다.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현재사회 구조는 너무 문화와 가치의 차이가 나는 세대로 구성되어 현실이 기대가치와 미래를 향한, 이상가치가 어우러진 정치의 실현이 어렵다는 것을 잘 안다. 일본 식민지 암흑시대를 살아오며 인권의 유린과 생존의 위협 속에서 성장한 세대와 해방 직후 무질서와 혼란과 혼돈의 시대를 체험하고, 이데올로기가 무엇인지도 모른채 총부리를 형제에게 겨눌수 밖에 없었던 그 지옥같은 시절을 보낸 세대, 전쟁의 상처와 처절하리만큼 가난함에 지쳐 다만 살기위해 몸부림쳐온 세대, '잘 살아 보세'를 외치며 이를 악물고 돈만을 위해 살았기에 자유와 평등이 무슨 가치인지도 모를 지경으로 장기집권의 폐해도 참고 견뎌온 세대, 이제 살만하다



느껴져 민주화란 이름으로 인간답게 산다는 것에 목소리를 모아 외치고 산 세대, 그리고 「뉴 키즈...」에 열광할 줄 아는 미래의 세대에게까지 엄청나게 빠르게 무척이나 다양한 사회의 변화에 어떻게 무슨 수로 맞추어야 옳바른 정치가 될까. 생각만하여도 어지러울 지경이라 다들 뒤 쫓무니를 뺄 것 같은 데 오히려 더 많은 인재들이 나타나 일하게 해 달라고 하고, 우리 시대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특효약들을 약속하니 어리둥절하기도 하고 참으로 다행한 일이라 생각되기도 한다.

그네들의 열성과 묘책 뒤에는 훌륭한 참모들이 있어 밤낮으로 이 시대의 문제들을 연구하고 있을 것이니 보다 나은 미래가 있으리라 기대하여도 될 것이라 여겨진다. 분명 평범한 우리들이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심지어 화나게 하는 모든 사회적 문제들과 그 원인과 근원적 대책들에 대하여 깊은 생각없이 우리를 이끌어 가겠다고 하진 않을게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이야기에 관심도 없고, 믿지도 않고, 오히려 코웃음을 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여

“

선거일 광고도 전에 벌써 우리
불안하기도 하고, 착잡하기도
하며 또한 우울하기도 하다.
그냥 믿으라니 믿어야지요
때문이다.

”

당이냐 야당이냐 가릴 것 없이 그렇고 그래서 나왔다는 사람들도 그렇다. 대통령이나 정부, 여당을 비난하고 손가락질 해도 잡아가지 않으니 민주화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고, 범죄와의 전쟁으로 질서가 잡혔다고 믿는 사람보다 오히려 범죄가 더 지능적이고 악랄해졌다고 하는 이가 많다. 아파트를 많이 지어 집 값도 주춤하여 내 집 마련의 꿈이 눈 앞에 왔다고 좋아하는 사람보다 전세값은 치솟고 이미 오를대로 오른 다움의 집 값이야 그림에 떡이라고 푸념하는 사람이 더 많다. 문화 공간도 많아지고 기회도 늘어 이제 문화 예술이란 것을 대하기가 수월해지고, 나날이 크게 발전하리라 기대하는 사람보다, 문화 생활이 곧 T.V시청 줌으로 여겨야 할 사람들이 많다.

우리 경제를 좀먹는 사치 풍토, 과소비, 낭비를 부르짖어 이제 조금 잠잠해진 것 같으나, 언제나 사치하고 걱정없이 돈 써보나 꿈꾸는 사람이 더 많다. 택시 기사들은 전부 난폭하고 불법을 밥먹듯 하는 이들로 매도하기도 하지만, 그들의 한숨과 울분을 들으면 절로 고개가 끄덕여지는 이가 많다. “교통문제 해결책이 있는 사람이면 대통령감이다”는 우스개 소

리가 나오는 것을 보면 무대책이 대책인 모양이고, 정말로 그랬는지는 모르겠으나 하늘에서 내려다본 서울의 도로를 보며 아직도 차 많이 팔 수 있다고 얘기하였더라는 소리에 욕을 할 수 밖에 없는 이가 훨씬 많다는 것이다.

정부 여당이 이지경으로 만들고 싶어 만들었겠는가, 그리고 이지경을 타파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겠는가라는 칭찬보다 비난의 소리가 높은 것은 그만큼 이유가 있음이다. 그렇다고 야당이 득세하면 얼마만이라도 나아지리라 기대하는 사람보다 오십보 백보지, 같은 통속이 지하며 외면하는 이들에게도 분명한 이유가 있다. 또 기성인들에게는 기대할 것 없다고 나선 그네들도 이지경의 주역인 기성인임을 깨닫지 못한다는 지적이 오히려 이유있다고들 한다.

그 이유들이 합당하든 그렇지 않든 그분들도 겸허하게 듣고 있으리라 믿어본다. 왜냐하면 좋은 싫든 그분들이 앞으로 4년간을, 미래를 향한 중요한 4년간을 우리를 이끌고 갈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믿지 않으면 공멸해 버릴 것이란 위기감에서이기도 하다. 다만 믿을만하고 좋아서가 아니고 구지 그런 토를 달고 믿는다는 것이 서로간에 여간 섭섭한 일이 아니다.

그분들이 우리를 어디로 데리고 갈까, 그분들은 우리가 어디쯤 가고 있는지 알기나 할까. 그분들은 우리가 어디로 가고 싶어하는지 파악하고 있을까.

선저일 공고도 전에 벌써 우린 불안하기도 하고, 착잡하기도 하며 또한 우울하기도 하다. 그냥 믿으라니 믿어야지요 때문이다. 卍

안 내

크리스마스 썰 동호회 발기총회 개최

오는 4월 10일 오후 6시 대한결핵협회 강당에서 '한국 크리스마스 썰 동호회' 발기총회가 개최된다.

이 발기총회는 지난 2월 14일 우선 파악된 썰 수집가들을 중심으로 발기하기 위한 모임을 갖고 발기준비위원회를 발족, "한국 크리스마스 썰 동호회 회칙(안)"을 마련하였다.

이 회칙안의 목적으로는 '크리스마스 썰 보급 및 수집에 관한 연구,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사업으로는 전시회, 강연회 등 7장 21개조로된 회칙안이 확정될 이번 크리스마스 썰 동호회 발기총회에 관심있는 많은 분들의 참석을 바랍니다.

- 일시 : 1992년 4월 10일 (18:00)
- 장소 : 대한결핵협회 강당
- 문의 : (02)633-9465
(대한결핵협회 홍보부)
(02)757-7756
(02)778-7756
(우문관 대표 김갑식)